



남방강선

5

주제 110(2021)
루게 제 381호 월간



표지: 화창한 봄날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화창한 봄날의 모란봉은 볼수록 유정하다.

가지마다 피어난 연분홍빛 살구꽃향기속에 묻혀있는 모란봉구역 성북동 90인민반 양현성가정의 행복한 모습이다.

본사기자 방은심



뒤표지: 구월산의 아침

본사기자 공유일

주제78(1989)년 8월 창간

주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편집: 최경희

1-218078



02



28



32



46



43



50

특별소식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개회사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 . . 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폐회사 17

래양절을 뜻깊게 경축 20	《아침해》상표식품들 34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24	로동과 문화생활 36
민족대단결과 조국광복회 25	좌담회
자립적인 화학공업으로 26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 40
화학공업발전의 개척자들 27	더 밝게, 더 밝게 42
비날론발명가 리승기 29	어제날 탁구강자의 오늘 44
대담	금연과 우리 생활 47
전망성있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30	력사만화영화작가 48
따뜻한 정으로 감싸다 31	오가산자연보호구 50

민족의 향기	
민족의 기상과 용맹을 닮은 새 54	
5월의 절기와 민속 56	

상식	
상무기풍 46	
각종 질병예방에 좋은 생각 56	
조선속담(편견) 48	
유모아	
리득을 보러다가 54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10(2021)년 4월 6일 - 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개회사



친애하는 세포비서동지들!

온 나라가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비상히 양양되어있는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근로자들과 언제나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이렇게 만난 자리를 빌어서 나는 나와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강화와 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동지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 그리고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열렬한 감사와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와도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동지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류레없이 많은 도전들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속에서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한단계 전진시키려는 당대회결정의 집행여부가 바로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들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입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조직들, 구체적으로는 당세포들이 정확히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철저히 집행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전당적으로 보면 세포비서들의 교체가 빠르고 지금 갓 사업을 시작한 세포비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세포사업을 함께 토의도 하고 지도적 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 없이 계속 진행하자는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대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를 책임지고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을 당규약에 규제하였습니다.

세계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말단기층당조직책임자들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당중앙이 직접 마주앉아 사업을 토의하는 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당중앙이 늘 당원대중속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배워주는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광범한 당원대중과 근로자들과 교감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중앙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직접 조직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당세포비서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업입니다.

당중앙위원회가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요한 대회로 여기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힘을 들이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들도 있지만 결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것은 당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며 이를 통하여서만 우리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는 전투적모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비록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 세포사업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전당강화의 지름길을 더 빨리 재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는 여기에 세포비서대회를 크게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세포비서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고 당정책관철의 기수이고 집행자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동지들이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세포비서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동지들은 대회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성을 가지고 참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 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다운 품모를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학습하여야 하겠습니까.

대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들과 지난 기간의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을 놓고 자신들의 사업을 돌이켜보면서 당세포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성격과 수준이 각이한 세포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집안식솔처럼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사업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 도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시, 군과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들 모두 1만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8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회의에서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류레없는 극난한 환경속에서의 최근 우리 혁명의 전진행정에 우리 당세포들은 언제나 당중앙을 옹위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하여 분

투하여왔습니다.

온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당세포들이 당중앙과 맥박을 같이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아들였기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할 바없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과정에 당대렬의 질적공고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당세포사업이 보다 정규화, 규범화되었으며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혁명적자각 그리고 선봉적역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당중앙은 최근년간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공적들과 건설의 대번영기를 장식하는 기

념비적창조물들, 자연의 재앙을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수도의 핵심당원들이 발휘한 자랑스러운 위훈 그리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농업부문의 결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를 당세포들의 역할과 결부시켜보고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세포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세여지고 혁명대오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데는 세포비서들의 숨은 노력과 아낌없는 헌신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기층조직을 책임졌다는 영예로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당세포강화의 불씨가 되어 당원대중을 참담케 이끌며 혁명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시원인 건설동지사를 모체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세포는 오늘 수십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충실히 머물고 강쇠처럼 굳세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중첩된다고 하여도 혁명투쟁에서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확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난 기간 기층당 조직건설에 특별히 힘을 넣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었지만 조금도 자만하거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당세포와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편향과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전당적으로 총성의 당세포대렬은 장성하였지만 아직도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이 혁명실천에 든든히 발을 붙이지 못한 결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과업들이 심히 미달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들

이 극복되지 못하고있는 현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당세포들이 제구실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 내재되어있는 주요한 결점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지난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적극 살리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대담하게 고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당원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당세포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세포강화는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나 당세포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m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자기 단위를 당정책의 요구대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갈 때 우리 당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당세포들에서 단결을 중시하고 모든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것, 이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든다는것은 세포당원들이 서로 믿고 위해주며 정이 통하는 한식술이 되어 힘차게 일해나가는 집단으로 되게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세포당원들이 믿음과 정, 동지적 사랑으로 뭉쳐 전우들과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세포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정,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인간적단합은 하나의 뜻과 진리로 뭉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투쟁하는 혁명가들사이에만 맺어질수 있는 단결로서 이보다 더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은 없습니다.

당세포가 뜨거운 인정미와 고상한 룰리도덕, 진실한 동지적사랑으로 단합되어야 어떤 경우에도 자기 혁명진지를 견결히 고수하고 용기백배할것이며 신심충천하여 계속전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단합이란 순수 인정관계로 맺어지는 맹목적인 결합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한 혁명적인 단결입니다.

당세포들에 있어서 건전한 인간적단합을 이룩하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게 움직일수 있게 하는 사상적자양분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어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자고 하여도 당의 사상을 모르면 자연히 그와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충성의 길, 혁명의 길을 곧바

로 걸어가도록 그들의 머리속에 당의 사상을 쉬임없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전달침투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 어디든 당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의 방침과 지시가 빠짐없이 제때에 가닿아야 합니다.

지금 당의 방침과 지시가 포치되면 모여놓고 한번 알려주는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농후한데 정상적으로 다시 새겨주어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문헌들에 제시된 사상과 로선, 정책을 비롯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에 대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보고를 비롯한 당회의문헌들의 사상과 진수, 내용을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보학습을 중시하고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당보에는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다 반영됩니다.

매일 《로동신문》독보를 제도화하고 사설을 비롯한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승리와 기적, 현실에서 찾아볼수 있는 전변상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사상교양사업은 제일 어려운 사업이며 당세포들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없는것만큼 사

상교양사업을 실시하면 나쁜 사상에 물젖게 됩니다.

우리 혁명대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투쟁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며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는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계급교양, 도덕교양, 이 5대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입니다.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계급교양, 도덕교양, 이 5대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들에서 5대교양을 틀어쥐고 공세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특정한 계기와 정황속에서만 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세포들은 일하면서 교양하고 교양하면서 일하는 원칙에서 사상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야 하겠습니까.

출근길에서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며 사업총화때에도 하고 집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도 하면서 모든 공정과 계기가 효과적인 교양시간, 교양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여야 실효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사람의 병상태에 맞게 약을 쓰듯이 신념이 나약한 사람에게는 혁명전통을 심어주고 대적관념이 떨떠한 사람에게는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며 자기 직업,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애국심을 북돋아주고 수입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력갱생교양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세포가 활동하는 그 어디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사회주의

기상이 높뛰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입니다.

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는것은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활동준칙들이 명확히 규제되어있습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새로 개정된 당규약의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우리 당은 어떤 당이며 어떤 원칙에서 조직되는가, 당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당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규약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이 당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세포의 존재방식이며 활동원칙입니다.

당세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규약상규범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총회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규약에 당세포총회를 한달에 한번이상 한다고 규제되어있는것만큼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것과 함께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고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잘 조직 운영하며 당원협의회도 자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총화는 일군들과 당원들을 교양각성시키고 당적수양을 높여주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생활총화를 제때에 무조건 진행하는 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올리비판을 강화하

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경향과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가 산 조직으로 되자면 당원들을 늘 움직여야 하며 당원들을 움직이는 기본방법은 그들에게 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총화평가하는것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정규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장악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저구실대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투쟁을 벌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입니다.

당세포의 단합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과 함께 매 당원들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의 간부이든 평범한 근로자이든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당세포에 소속되어 당생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특수화하는 사람들, 당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시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레외없이 집단의 단합에 해를 주고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갑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이 당세포를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이 세포안에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당세포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 레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수 없으며 이중규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간부일수록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일군들이 스스로 당적분공을 받아안고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적수양도 쌓으면서 당원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 해를 주는 일련의 폐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를 시급히 극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다섯째로,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 확고히 지향시키는것입니다.

당중앙은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 강산이 또 한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의 힘, 수십만 당세포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 총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조건은 대단히 어렵고 없는것도, 부족한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수백만 당원대중의 피끓는 심장이 있습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자신들앞에 부과된 임무와 과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생활총화와 분공조직도,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전투목표를 달성하는데 철저히 지향시키며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의 생각과 실천이 한곳으로 흐르도록 사상동원, 정신력발동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제때에 시정 극복하여야 합니다.

세포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모범적소행들을 찾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며 다른 단위들의 우수한 경험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경제부문 당세포들이 더 분발하여 용을 쓰며 힘차게 나

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의도는 당대회이후 경제사업에서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이 일어나게,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자는것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건설건설부문, 농업부문, 경공업과 수산부문, 국가경제지도기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당세포들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섯째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마음먹은대로 공장을 팡팡 돌리고 농사를 본때있게 지으며 건설을 힘있게 내밀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얼마나 실속있게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와 전진속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는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세포사업계획에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고 그에 따르는 분공조직과 총화를 실속있게 하며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열성독자가 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개건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발명, 기술혁신을 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방

법론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창의고안을 하고 새 기술을 발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탄광과 광산, 공장, 기업소의 당세포들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 능률높은 생산방법들을 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으며 농촌당세포들에서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풍을 계속 고조시켜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기술학습에 빠지는 현상, 낡은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에 매여달리면서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새 기술도입을 저애하는 경험주의, 보수주의에 투쟁의 불을 걸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 당세포들에서는 과학자, 연구사, 기술자들의 재능과 지혜,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켜 최단기간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일곱째로,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데 힘을 들이는것입니다.

아무리 정갈한 샘물에도 오염된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지는것은 명백한 리치입니다.

오늘날 당원들속에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생겨나게 된것은 지난 기간 당세포들에서 당장성사업을 바로하지 못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세포들이 입당대상자장악과 추천에서 당적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할수 있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그가 누구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당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실지 정치사상적각오가 높고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며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채로 치듯 엄선하여 입당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당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단련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세포에서는 입당대상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부족점을 고쳐주기 위한 교양대책을 세우며 그들이 본진임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것과 함께 단위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업도 맡겨주면서 실천속에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도 시키고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며 동맹조직생활에서도 계속 모범이 되도록 부단히 각성시켜 당원으로서의 자질과 품모를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렬에는 앞으로 당원이 되어서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당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수 있는 견실하고 준비된 대상들만 들어서게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덟째로,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것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후비대, 교대자이며 따라서 청년교양문제는 당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업입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세대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청년들을 늘 옆에 끼고있는 당세포들이 청년교양에 보다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세포들은 오늘날 청년교양문제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데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자주 알아보면서 그들이 조직사상생활에 잘 참가하고

말은 혁명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키우고 청춘시절을 보람있게 빛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어머니처럼 세심히 보살피며 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년들도 꾸준히 원칙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이 내세우는 고마운 당세포가 되어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청년동맹사업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며 동맹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창조운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청년동맹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바통을 곳곳이 이어나갈수 있는 계승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아홉째로,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주인구실을 잘해나갈 때에만 자기의 본태와 우월성을 견지하고 발양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인간개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천리마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군중의 동향과 정신상태, 생활형편 등을 제일 잘 아는것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개조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에게 뒤떨어진 사람, 현행에서 문제있는 사람들을 맡겨주고 진정을 바쳐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록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과 애국의 본태만 살아있다면 당의 뜻으로 품어안아 사회주의대가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것만큼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 적극 장려하여 부정을 약화시키며 한두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열번, 백번 꾸준히 설복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이 한사람씩만 맡아 교양개조하면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만 고유한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국풍입니다.

혁명의 전세대들은 장기간의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숭고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왔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기반우에서 승승장구하여올수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여온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과 도덕관을 확립하는데로 군중을 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들은 집단안에 뒤떨어진 사람은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다음교대, 다른 작업반을 위해주는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 집단적혁신,련대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

누며 좋은 일은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나서는 기풍과 호상 존중하고 례의를 지키는 고상한 도덕품모가 지배되게 하여 집단안에 화목과 단합, 동지애와 친혈육의 정이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열째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법기관들의 투쟁과력만이 아닙니다.

전체 인민이 자기자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릴 때라야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만연되어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낱알이 발가놓고 쓸어버릴수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소탕전에로 군중을 조직발동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옹당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의 표현형태와 위험성,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인이 박히게 꾸준히 해설하여 대중자신이 이런 현상들을 증오하고 타매하며 자기 단위와 주위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행위들을 짓뭇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세포가 무뎠다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판을 치고 나아가서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와의 투쟁에서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도 몰라야 합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런 행위들과의 당적, 행정적, 법적투쟁의 도수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당세포들이 자기 단위, 자기 집단에서 그 자그마한 싹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상특성으로부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나타날수 있는 단위의 당세포들이 보다 각성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바짝 조이며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집중적인 비판공세를 들이대어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의 과업이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대과업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사업의 성과여부는 세포비서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초급정치일꾼이며 세포사업, 세포단합의 작전가, 조직자, 집행자입니다.

우리 당조직체계안에 세포비서들처럼 매일 매 시각 당원대중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하며 직접 당정책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실천해나가는 정치일꾼은 없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 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정치의식과 준비정도가 낮은 적지 않은 세포비서들의 편향적인 사업방식을 심중히 지적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이고 고상한 정치도덕적품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은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할 때 군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비서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당세포비서들의 공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

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세포비서들은 물론 당원들과 군중과 담화도 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침투시키고 세포사업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 잡아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 당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포강화, 세포단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세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전당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자고 합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포비서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큼니다.

당중앙은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 투지를 안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지금 우리 혁명은 우리 식의 새로운 변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의 더없는 헌신과 실천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모두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결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혁명적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폐회사



세포비서동지들!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고 기본인 당세포 강화에서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당세포들의 사업정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었으며 현시기 당세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과업들과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

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었으며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여 당면한 우리의 투쟁목표들을 철저히 수행할 굳은 의지들이 천명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새겨준 의의깊은 대회로 주체의 당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은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될수 없습니다.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시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은 이번 대회에서 당세포앞에 나서는 10대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내놓았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술로 만드는데서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동지들, 당세포비서들이 남 모르는 속도 많이 태우고 고생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할것입니다.

당세포비서들은 지식들의 생활과 성장에 늘 관심을 돌리고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전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집단으로, 고락을 함께 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전위대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세포의 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합니다.

당세포비서들이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 나갈 때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군중과 늘 함께 생활하고있는 당세포비서들의 발언과 행동은 사람들의 심리에 즉시적으로 작용하며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세포비서들은 마음속정정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란한 정치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꼭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 줄 알아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선구자들

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세포비서동지들!

동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을것입니다.

우리 당이 억세고 굳건한것은 총비서가 있어서나 당중앙위원회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전투단위이고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이 있고 이를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당의 구상이 구현되는 생산현장에서 대중과 꼭 같이 일하면서 당이 진격할 때에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당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목숨으로 당을 옹호보위하는 당의 진위대, 돌격대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희생적노력과 투쟁으로써 묵묵히 당을 억척같이 떠받들어 나가는 당세포비서동지들을 떠나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전변과 걸어온 승리적려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직위나 특전이나 보수로써 보통사람들과 구별되는것은 없지만 우리 당의 주추들이 되고 우리 당이 전개하는 위대한 사업의 기수로, 전위투사로 믿음직하게 서있는 우리 당세포비서동지들은 특별한 직위없는 직업적혁명가들이며 보수없이 당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영웅중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중의 핵심인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우리 혁명을 위해, 우리 당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투쟁해줄것을 당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로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믿을뿐입니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당을 지키려고 수십년세월 모진 고난을 겪어온 인민들의 고생을 이제는 하나라도 덜어주고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세상에서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이며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최고의 영예이고 최상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당은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포비서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우리 인민이 불러준 어머니당이라는 위대한 이 부름앞에 땀땀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 당세포비서동지들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는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전투적으로 호소합니다.

전당의 수십만 세포비서동지들과 당일군들이 당중앙의 령도따라 당원들을 굳게 단결시키고 그들의 충실성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킬 때 우리 혁명은 양양한 기세로 승승장구할 것이며 공산주의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나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동지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 *





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은 근로자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4월을 맞으며 조국땅 곳곳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더욱 차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녀사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

고한 경의를 표시하시고 영생홀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4월 15일 태양절경축 중요예술

단체들의 합동공연도 관람하시였다.

한편 각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시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중앙사진전람회와 전국소묘, 서예축전이

진행되였다.

전람회장과 축전장을 찾은 관람자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념원과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꽃피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력사를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과 소묘, 서예작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

아보았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의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속에 15일 저녁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경



태양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가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한 수도 평양

축의 춤바다를 펼치었다.

야회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색찬연한 축포의 불줄기들이 일제히 솟구쳐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태양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중앙과 평양시의 예술선진대, 예술소조들도 수도의 곳곳에서 야외공연무대를 펼치며 명절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경축의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이 진행되었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조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 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성철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이 진행되었다.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의 길림에서는 태양절을 경축하는 재중 동포들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가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일군들, 중국인민지원군 로전사, 지원군렬사가족들,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료녕지구협회 산하조직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은 보고에서 조국의 인민들이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9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통운의 날이며 세계 진보적인 민들에게 자주시대의 려명을 안겨준 려사적사변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려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그는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국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수놓아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조국의 룡성번영과 조국수호전에서 해외동포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두다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영화감상회와 경축연회가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산하조직들, 중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에서도 꽃바구니진정행사와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좌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 * *

민족대단결과 조국광복회

조선혁명의 전력사는 단결의 려사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에서 민족대단결의 시원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193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식민지적락탈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차없이 탄압말살하였다.

이러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하나로 묶어세워 전국적인 규모에서 광범한 투쟁을 활발히 벌릴수 있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에 인민들의 반일투쟁은 분산성을 면할수 없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정세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민족을 망라시킬수 있는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5(1936)년초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앞으로 새로 조직하려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는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까지 포함한 전민족을 조국광복성전에 묶어세우는 대중적인 조직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명칭은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의 해방을 실현할데 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는 한편 친히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시였다.

주체25(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조국광복회창립대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규약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5월 5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발표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장으로 모신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 창립후 정치공작소조 및 정치공작원들을 도처에 파견하시여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이끄시였다.

조국광복회조직이 확대되던 어느날 백두산밀영으로 천도교의 박인진도정이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이의 애국애족정신에 완전히 매혹된 도정은 그이이시야말로

조선의 《한울님》이시라고 굳게 확신하였으며 천도교의 100만 청년당원들을 모두 조국광복성전에 묶어세울것을 마음다지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라면 성벽을 쌓던 천도교인들이 그이께서 추켜드신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단결하게 되었다.

각계층 인민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한마음한뜻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속에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도시소시민과 민족자본가도 있었고 박인진과 같은 종교인들과 김정부와 같은 지주도 있었으며 지어 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국의 전지역은 물론이고 만주와 바다 건너 일본땅에까지 조직이 확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서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의 전과정은 조선인민이 분렬이나 대립보다 통일이나 화합을 더 좋아하는 인민이며 당파와 소속,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발밑에 뭉쳐 싸워나갈수 있는 뛰어난 의지를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고 쓰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조선인민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쳐 반일성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었으며 전 반적조선혁명은 일대 양양기를 맞이할수 있게 되었다.

김광철

자립적인 화학공업으로

조국에서 화학공업은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 경제의 쌍기둥으로 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화학공업이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으로 그 위치와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조국에는 국내의 원료에 의거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원료원천이 매우 풍부하며 전망적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하나화학은 유기화학공업의 새로운 원료원천을 찾아내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탄소하나화학공업으로 원료와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석유화학공업에서 생산하던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만들어 낼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원유가 없거나 적은 나라들에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기름돌 등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얻은 다음 그것으로 유기화합물들을 합성하는 방향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조국에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원료로 리용할수 있는 갈탄이 무진장하다. 이것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며 가능성이다.

지난해 순천린비료공장이 건설되었고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출발물질인 메타놀합성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진전을 가져왔다.

뿐만아니라 국내에는 종이와 화학섬유, 탄산소다, 카리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갈, 회망초, 카리장석 등 원료원천이 풍부하다.

특히 회망초는 소금이 없이도 류산과 가성소다, 탄산소다를 얼마든지 얻을수 있는 귀중한 원료이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 생산공정이 개건완비되면 탄산소다와 류안비료, 석고를 생산하게 되며 그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현재 남흥지구에 연건평이 수만㎡에 달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원료원천이 풍부해도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가 따라지지 못한다면 공업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국내의 원료에 의거하는 화학공업은 고품질단기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인 올해 화학공업부문 앞에는 질소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탄산소다생산공정의 완성 등 많은 과업들이 나서고있다.

과업은 방대하지만 얼마든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답을 찾을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 화학공업부문에는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이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첨단기술개척을 떠맡아안을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현재 공업실천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기술집단은 올해 농업부문에 질소비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면서 불합리한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고있다.

생산공정들을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세부구조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여러 화학공장들에서 질 좋은 섬유와 방향족화합물들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개건하고있으며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연구단위들에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있는 리오셀섬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과 촉매연구력량을 강화하여 촉매와 보조약제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인 올해에 경제발전의 핵심공업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화학공업의 전망이 매우 기대되고있다.

본사기자

화학공업발전의 개척자들

조국의 화학공업을 자립성이 강한 공업, 핵심공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종합적화학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맡고있는 임무는 자못 크다.

주체49(1960)년 8월에 창립된 분원은 비날론공업창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왔다.

지금 이곳 과학자, 기술자

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회망초에 의한 탄산소다생산공정기술개건, 신의주화학섬유공장현대화를 위한 기술준비 등 그들이 해결해야 할 중점연구과제는 방대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면서 연구과제들을 풀어 나가고있다.

특히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연구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이 창설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는 큰 변화와 진전이 이룩되게 된다.

이미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첫 단계인 메타놀생산공정확립을 완료한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올레핀분리공정확립을 위한 사업을 다그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연구사들 주체68(1979)년 촬영



이와 함께 다음단계의 공정인 에틸렌으로부터 화학제품의 원료로 되는 초산알데히드, 초산비닐, 염화비닐 등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분원의 연구사들은 기존의 기술에 의거하지 않는 새로운 화학공업을 창설하는것으로 하여 모든것을 자체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하였다.

그들은 매 생산공정들을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연구개발하였고 그에 따르는 기술지표들을 확정하는것과 동시에 공업화기술과제서들도 작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촉매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생산공정은 물론 원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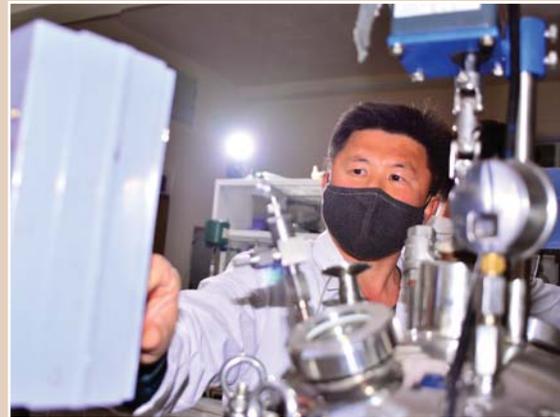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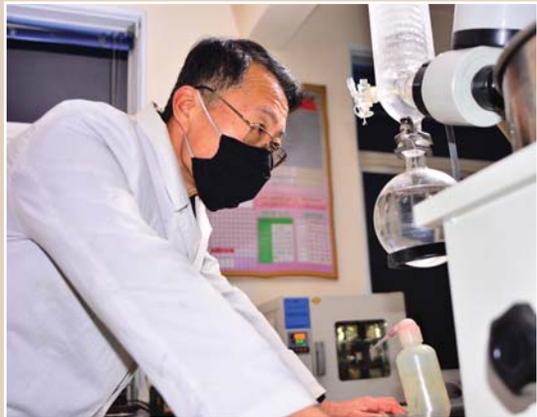
국산화될 때 주체화된 화학공업을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이 이곳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관점이다.

그들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며 촉매원료들은 물론 그 제조에 필요한 경화제도 국내에서 찾아냈으며 촉매의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에서도 성공하였다.

강현수 함흥분원 원장은 《현 단계에서 나라의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 발전에서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였다.

글 분사기자 강경수

사진 분사기자 김영호



비날론발명가 리승기

조선의 리승기(1905. 10. 1-1996. 2. 8.)는 비날론을 발명한 화학자이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강요당하여온 그는 민족의식이 강하였던 가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할 지향을 품고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였다.

주체20(1931)년에 자연과학부문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주체28(1939)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폴리비닐알콜에서 새로운 합성섬유인 비날론을 발명하는 특출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그후 비날론공업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민족차별정책과 박해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방후 그는 남조선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학장을 역임하면서 민족교육과 과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실현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서야 그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으며 오랜 숙망을 실현할수 있었다.

주체39(1950)년 7월부터 흥남시의 화학공장기사로 사업을 시작한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도 국가의 관심속에 평안북도 청수에서 비날론연구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창설을 위한 과학적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연구사업에 기초하여 조선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주체적이며 대규모적인 비날론공업이



창설되었다.

비날론생산이 공업화된 후 그는 비날론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과 모비론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주체50(1961)년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수많은 박사, 교수들을 양성하였으며 저술활동도 많이 하였다.

대표적저작은 《비날론》과 《비날론론문집》이다.

그는 원사(1952년), 교수(1961년), 박사(1959년)이며 다른 나라의 과학원 명예원사, 명예교수칭호도 받았다.

조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김일성상(1980년), 로력영웅(1961년), 인민상(1958년), 인민과학자(1986년)칭호를 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 * *

전망성있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따뜻한 정으로 감사다

얼마전 본사기자는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화학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화학공업성 부국장 정영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국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부터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부국장: 우리 나라에는 국내의 원료에 의거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갈탄을 적극 리용하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갖가지 기초화학제품을 다량생산할수 있으며 갈, 회망초, 카리장석 등으로는 종이와 화학섬유, 탄산소다, 카리비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인민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화학공업성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국내원료에 철저히 의거하는 화학제품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순천지구에 메타놀생산공정과 올레핀생산공정을 세우기 위한 사업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탄산소다생산공정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리오셀섬유공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질소비료생산과 탄소하나공업에 필요한 촉매생산기지들도 꾸러지고있습니다.

기자: 지금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행생산을 보장하면서 생산토대를 보강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이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국장: 그렇습니다.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는 사업은 곧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으로서 최신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부족한 력량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모든 생산자들을 창조형인재, 실천형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대중속에서 특이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어 능력에 맞



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새 기술과제도 대담하게 맡겨주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학연구단위의 기술력량을 총집중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시켜나가고있습니다.

교육부문의 밀접한 련계밑에 첨단기술개척을 떠메고나갈 쟁쟁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화학공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들의 열의에 의하여 우리의 화학공업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국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으로 전환되게 될것이며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철들어 자립성이 생길 때까지는 부모들이 늘 관심하여야 한다. 평양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을 교육

자들이 대신하고있다. 학원에는 매 학급마다 원아들의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교원과 과외교양

원이 각각 한명씩 있다. 이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원아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

수업시간과 과외학습시간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이 이들의 임무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나 되는 원아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달게 해낼수가 없으며 더우기 처녀교육자들에게는 혈한 일이 아니다.

모든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이 다 갖추어진 학원에서 부러운것없이 생활하는 원아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는 원아들



지만 자기의 선생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다.

부모를 대신해준 애육원의

보육원들이 그리운듯 창문가에 매달려 애육원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선생님과 눈길이 마주치면 슬며시 외면해버

리는 원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종일 가야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는 원아들도 있었다.



언제인가는 안경알을 깨놓아 새 안경을 마련해주었건만 이틀만에 안경다리를 꺾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구해준 안경이 싫다고 선생님의 성의를 무시해버리는 원아도 있었다.

그때의 심정을 두고 오향금 교원은 《정말 속에 재가 앉는것만 같았다. 원심을 쓸수록 원아들이 내결에서 더욱 멀어지는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원아들에게 기울이는 처녀교육자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만 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매일과 같이 엮여졌다.

원아들이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머리맡에 새 양말과 고운 머리핀침도 놓아주며 정성을 기울이었고 수십 명이나 되는 원아들의 교복을 다려주며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밤이면 원아들

의 꿈속말도 사랑스럽게 들어주었고 생일날에는 식탁에 색다른 음식도 놓아주면서 더없는 기쁨을 찾는 처녀교육자들이었다.

하기에 한해두해 커가는 평양초등학교의 원아들은 나에게 《엄마》가 많다, 공부를 잘해서 큰사람이 되라고 일깨워주는 《엄마》도 있고 밤이면 추울세라 조용히 이불깃을 여며주는 《엄마》도 있다, 《엄마》들은 내가 아파할 때면 약도 먹여주고 밤새 나를 간호해준다고 누구나 속마음을 터놓는것이다.

그러나 원아들을 위한 처녀교육자들의 마음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원아들이 교실과 침실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참된 인간으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겠는가에 늘 마음쓰는 그들이었다.

처녀교육자들의 어머니다운 손길에 떠받들려 원아들은 자

기보다 먼저 동무들을 생각하고 학원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래웠으며 《해바라기》학용품과 《소나무》책가방을 비롯한 자기들이 리용하는 모든것에도 나라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점차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했다.

과외교양원 태정운은 《우리 교육자들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배움의 첫 대문에 들어선 원아들을 위대한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나가는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려고 합니다. 원아들을 부강조국의 건설자들로 대바르고 역세계 키워야 할 우리들의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라고 자기의 책임감을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아침해》상표식품들

국내의 많은 식료산업체들의 각이한 발전과 경쟁속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맛을 살려 인민들의 호감을 사는 식품이 있다.

선경종합식료공장의 《아침해》식품들이다.

빵류, 고기가공류, 음료류 등 제품들은 130여종이나 된다.

제품들은 높은 질과 낮은 가격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공장은 질을 우선시하여 구매자들의 인식속에 남아있는 《아침해》식품으로 만들 하나의 지향으로 오늘까지 13년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식료산업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규모를 확장하고 실력

을 높이려면 여간 어렵지 않다. 전문화된 설비들을 갖추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부합되는 경영방법을 따라세워야만 가능하다.》라고 지배인 서승녀는 말하였다.

생산초기에 수공으로 식품들을 만들던 때로부터 점차 원료 구입과 분쇄, 제조, 포장에 이르는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한 공장은 오늘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는 곡절도 있었다. 초기에는 순수 손으로 만든 식품보다는 기계로 만든 식품의 맛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배인은 낮은 편견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을 한날한시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여러 나라들과 국내의 앞선 식료공장들에 대한 참관과 기술강습을 조직하여 그들의 견문을 넓혀주었다.

이 과정에 《아침해》제품의 질이 갱신되었고 제품개발에서는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빵생산기술이 풍부해져 제품의 가지수가 다양해졌으며 선진적인 가공기술로 만들어진 고기가공제품들은 그 맛과 질이 국내에서 우수한것으로 인정되었다.

천연원료로 만든 과자와 튀

기제품들은 그 맛과 향기가 천연적이어서 어린이들뿐아니라 어른들도 즐겨찾는다.

비타민나무열매를 리용한 술 제조방법, 여러가지 고기가공방법을 비롯한 10여개의 기술이 국내특허기술로 인정되었다.

명예는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공장에서는 이미 올려세운 식품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매일 아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놓고 생산조직을 진행하고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부단히 혁신하고 창조하는것은 이곳 종업원들의 체질로 되었다.

일총화사업도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시식회를 진행하는것이다. 맛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의 출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나 자기의 맛을 잃지 않는 《아침해》식품!

공장은 앞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제품의 종수와 가지수를 늘여 인기식품의 지위를 계속 고수하려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로동과 문화생활

그들은 어떻게 되어 신문, 텔레비존과 방송들에 자주 소개되고 모임들에 초청되는가.

생산에서 언제나 첫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있는가.

그들은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평천구역에 위치한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을 찾았다.

공장직맹위원장 리인영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구내에 들어섰다.

푸른 인공잔디를 깔아놓은 운동장과 여러 생산건물들, 탁아소와 문화회관, 야외휴식터 등 모든것이 정갈한 모습으로 눈에 안겨들었다.

리인영의 말에 의하면 2년전까지만 해도 명절과 휴식일이면 운동장에서 공장적인 체육경기가 진행되곤 하였는데 정말 볼만 하였다고, 우승을 쟁취하기 위한 각 직장들의 승벽심이 경기후이면 생산경쟁으로 이어지곤 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공장을 둘러보니 너무도 깨끗하여 첫 순간에 과연 여기가 공장이 맞는

가 하는 의문이 앞섰다.

우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두해전 재일동포대표단이 우리 공장을 참관한적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본 그들은 전선을 생산하는 공장을 참관한다기에 일본에서처럼 생각하고 숙소에서 작업복과 같은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리면서 이 공장처럼 공해가 없고 깨끗한 공장은 처음 보았다고, 로동자들모두가 희열에 넘쳐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동이나 알루미늄을 녹여 선을 뽑을수 있게 하는 첫 공정인 연신직장의 공기는 맑았다. 전력선들에 각종 절연물을 씌우는 작업장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었고 배풍장치와 제진장치들이 잘 갖추어져있었다.

이렇듯 깨끗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생산열의 또한 높았다.

케블직장에서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김철무는 평천구역인민회의 대의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에 지난해보다 전력케블생산계획을 1.8배로 높이 세웠는데 그 수행을 위해 모든 종업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애써 노력하고있다는것이였다.

기대공들은 하나와 같이 설비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제품의 질을 과학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긴장하게 일하고있었다.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공장에 세워진 기술전 습체계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에서 직접 기술학습을 진행하기도 하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기술기능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있었다. 하여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제품들의 질은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공장에는 노동조건보장과 함께 문화후생시설도 잘 꾸려져있었다.

우리는 공장구내에 있는 문명원홀에 들어섰다. 홀바닥에는 보석주단이 펼쳐져있었고 1층에서 3층까지 량견으로 뻗은 라선식계단이 대형무리등을 감싸안은듯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은 노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의 원격강의실에서 우리와 만난 지도교원 김송미는 주체103(2014)년부터 지금까지 백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김일성종합

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여러 대학의 원격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속에서 창의고안명수와 학위소유자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느라니 우리는 새 제품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생산적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성과의 비결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수 있었다.

공무직장장 김광만은 《우리는 하루작업을 마친 후 문명원에서 과학기술학습도 진행하고 문화후생시설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쌓인 피로를 풀고있습니다. 노동환경이 좋고 문화정서생활조건도 공장구내에 갖추어져있으니 참으로 편리합니다. 우리의 노동생활은 말그대로 기쁩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환한 웃음을 짓고있는 생산자들의 모습도 사진기렌즈에 담았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주체108(2019)년 촬영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

참가자

- 강영일: 교육위원회 국장
- 김창남: 김형직사범대학 부학장
- 주영란: 대외경제성 국장
- 본사기자: 홍정혁

기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조국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정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기적에 기적을 낳게 하는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 국력을 파시하는 중요징표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영일: 옳은 말이다. 과학의 어머니가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이 과학발전의 기초, 선결조건이며 교육의 질적수준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결정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가는 인재들은 교육에 의하여 육성되므로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과학기술의 발전이 담보된다는것이다.

기자: 이 사상은 한평생 교육사업을 중시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빛나게 계승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영란: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후대들의 연필문제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당시) 제1차회의 의정으로 정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해방전 낫놓고 기육자도 모르던 인민들이 문맹퇴치운동에 적극 떨쳐나섰고 수도 평양에는 인민의 자녀들을 위한 종합대학부터 먼저 일떠섰다.

김창남: 나라가 최악의 시련을 겪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교육사업은 우선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 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는 철리를 가르쳐주시며 시련이 겹쌓일수록 교육사업에 더욱 큰 힘을 넣으시였다. 바로 그 시기에 우주분야와 CNC기계분야를 비롯한 첨단과학부문의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강영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교육사업전반에서 일대 전환이 이룩되고있다.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사상은 우리 교육일군들이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기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상을 두고 시대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말하고있다.

강영일: 그렇다. 과학이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 그 개조에 관한 방법론을 담은 체계화된 지식이라면 교육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인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때문에 교육발전에 박차를 가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고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비유하여 생동하면서도 심도있게 밝힌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의 독창성과 통속성, 철학적깊이가 있다.

김창남: 이 사상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교육사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인재강국화, 과학기술강국화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인재를 낳고 인재가 과학을 낳는다면 과학은 교육발전을 추동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느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다같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발전의 선행이다.

기자: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선행하여 발전시키자면 옳바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영일: 무엇보다도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체



강영일



김창남



주영란

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인재들의 질적수준은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지식전수위주, 주입식교육방법을 근절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실리있는 교육방법을 탐구도입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교육내용편성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교수내용을 현실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있다. 교육내용을 최신과학기술성과들로 부단히 갱신해나가는것, 실천과 실험실습, 기능훈련의 비중을 높이는것도 우리가 교육내용편성에서 중시하는 문제이다.

최근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교육과학연구단위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중학교, 평양의국어학원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단위들에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고있는 조건에 맞게 원격교육, 안내수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학생들의 실력평가방법에 특별히 힘을 넣고있다.

기자: 교육사업의 성과여부는 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에도 많이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김창남: 옳다. 교원의 자질이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일군들의 임무가 대단히 무겁다.

지금 후대교육의 원종장인 김형직사범대학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고상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육자후비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박사원교육을 받은 대상들가운데서 실력이 높고 교육자로서의 전망이 좋은 대상들로 대학교원진영을 꾸리고있다. 그리고 재교

육과 강습, 교수경험토론회, 교수경연 등을 진행하여 가장 훌륭한 교원들을 찾아내고 장려할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일반화하고있다.

우리 교육일군들이 교육사업에 혼심을 다 바칠 때 나라의 인재육성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영란: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충실한 인재, 심도있는 전문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이다. 이러한 인재육성은 농사처럼 한해동안에 결실을 거둘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성과가 인차 눈에 띄우는 사업도 아니다.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교육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교육부문 일군들만의 노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수 없다. 교육과 인재를 최우선시하고 교육사업을 자기 집일처럼 대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투자와 품을 아끼지 않는 전사회적기풍이 확립될 때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가속화될것이다.

지금 조국에서는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하여 지방의 각급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학교들을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일신하기 위한 후원열풍, 지원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강영일: 그렇다.

오늘날에는 나라들사이의 국력경쟁, 과학기술경쟁이 그를 안받침하는 교육경쟁, 인재경쟁으로 되고있다. 지금 교육부문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도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더 밝게, 더 맑게

남포시 와우도구역에서 사는 리정남(35살)은 류경안과종합병원의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곳 록내장과선생님들의 모습을 나의 눈에 영원히 새겨두고싶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지난 2월말 뜻밖의 사고로 실명된 그는 류경안과종합병원으로 실려왔다. 병원에서는 량안개방우각록내장과 좌측눈 외상성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시력은 0.05, 좌측눈은 광각, 거기에 심한 부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다.

병원에서는 진지한 협의끝에 수술과 약물치료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장 한영신을 비롯한 록내장과과의사들은 집중치료에 달라붙었다.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행된 협의회만도 수십차

나 되었다. 절망에 빠졌던 리정남은 40여일만에 가족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입원기간 그는 다 몰랐다. 자기가 받은 수술이 다른 나라에서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어야 하는 첨단급이고 자기의 눈에 하루에도 여러차례 흘러든 약물이 얼마나 귀한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준 의사, 간호원들의 살뜰한 모습을 한번도 볼 수 없었다.

눈에 감았던 붕대를 풀던 날 그는 한영신과장이며 의사, 간호원들을 뜨거운 걱정속에 보고 또 보았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그들이 마치도 혈육처럼 여겨져서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새겨져있다. 5년전 11월 2일 병원의 첫 입원환자로 등록되어 광명을 되찾은 평양시 대동강구역의 김은심녀인, 포도막염으로 실명되었던 두눈의 시력을 되찾고 너무 기뻐 《만세!》를 불렀다는 어느 협동농장의 농장원 전경화녀인, 오래동안 앓고있던 안과질병을 고치고 안경을 벗은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영배로인 등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고 백이 부피두터운 여러권의 감상록들에 정히 쓰여져있다.

그들이 지닌 정성은 뜨거웠다. 그들의 진정에 의해 이곳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더 밝고 더 맑은 눈으로 병원문을 나서고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겨사는 주위의 세계를 정겹게 바라보고있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참관한 이탈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야꼬뵈 브로지오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치료비가 매우 비싸 극히 적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받고있는 귀국의 현실은 우리의 귀감이다.》라는 글을 감상록에 남겼다.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 대표였던 로길남은 《초현대적인 병원건물, 세계최고의 치료실들과 설비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병원은 처음 보았다. 북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느낀다.》라고 썼다.

글 봉사기자 홍정혁
사진 봉사기자 김금진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본다.

어제날 탁구강자의 오늘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리분희(왼쪽) 주체80(1991)년 촬영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경기성파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높이 휘날리고 싶어한다. 조국의 체육일군, 감독, 선수들도 바로 그것을 지향하여 헌신해가고있다. 그들중에는 1980년대 세계탁구무대에서 탁구강자로 이름을 날린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인민체육인 리분희도 있다. 그는 현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그가 탁구선수로 된데는 1970년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박영순선수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는데 있다. 그때 그의 작은 가슴속에도 국제무대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싶은 꿈이 싹트고있었다.

그렇게 되어 8살때부터 함흥시의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에서 탁구를 배운 그는 주체68(1979)년부터 압록강체육단에서 탁구선수로 활약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제6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청소년 여자단식경기에서 1등을 쟁취하여 어릴적에 품고있던 꿈을 처음으로 실현하였다.

그후 그는 6차례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대회들에 참가하여 금메달 26개를 쟁취함으로써 공화국기를 련속 올리였다.

당시 세계의 탁구전문가들은 《리분희선수는 세계적인 탁구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탁구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는 여자탁구강자들중의 한사람이다.》라고 평하였다.

그 나날 그는 제38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경기성적이 가장 높은 선수에게 수여되는 줄라상을 수여받았으며 제39차, 제40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성과로 세계탁구강자순위 2위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그 강자순위를 5년간이나 고수하였다.

조국의 영예를 빛내가려는 그의 이런 열의는 선수생활을 마친 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보다 높이 발휘되었다.

사실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희망을 실현시켜주며 그들이 국내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참으로 컸다.

그는 장애자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한편 그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었다.



리분희

협회에는 뜻밖의 일로 량쪽손과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과 신체의 많은 부분에 강직이 온것으로 하여 손가락도 들지 못하는 전주현이 있었다.

그는 감독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장으로 이끌어주었고 병을 고쳐주기 위한 기능회복치료도 적극 벌려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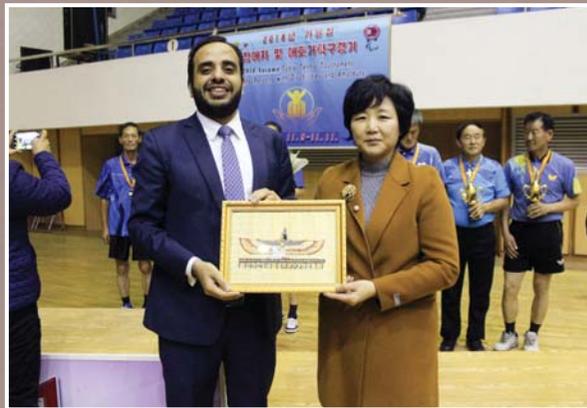
때로는 힘들다고 물려서려 하는 그들을 사랑과 인내력으로 설복하고 분발시키며 훈련장에 나서게 하였으며 매 선수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연구하고 수단들을 개발하여 적용해갔다.

그 나날에 그들은 자기를 이겨내고 사람들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으며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전주현, 김영록은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와 방콕장애자공개탁구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당시 그것을 목격한 각국의 체육전문가들과 기자, 선수들은 리분희를 비롯한 협회성원들의 손을 잡으며 자기들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유렵의 한 기자는 《조선의 장애자들이 금메달



조선장애자체육협회사업을 하고있는 리분희 주체109(2020)년 이전시기 촬영

을 높이 들어올리고 이국의 하늘가에 국기를 휘 날렸으니 참으로 대단하다. 이것은 <인권>의 허구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드는 세력들의 면전을 보기 좋게 후려갈긴 폭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애쓴 그의 노력이 그대로 장애자들이 국제무

대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과시하게 한 것이었다.

오늘도 그는 장애자체육인들을 위한 사업에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상무기풍은 무술을 숭상하는 기풍 다시말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이다.

고구려시기에는 상무기풍이 하나의 일상적인 생활기풍으로 되어있었다.

이 시기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무술련마를 일상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민간오락과 경기들을 해도 무술을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고구려시기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는데서도 무술을

상무기풍

중요하게 보았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나라방위를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우고 일상적으로 무술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봉건국가도 군사를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상무기풍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고구려시기의 상무기풍은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심의 발현으로서 나라의 군사력강화의 중요한 담보로 되었다.

* * *



금연과 우리 생활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는 말은 오늘날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리해하는 말이다.

더우기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주로 숨길을 통해 폐에 침입하기때문에 흡연자가 악성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와 담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가고있다.

이런데로부터 담배를 끊는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되고있으며 담배를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과거의 유물로 만들기 위한 금연운동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금연법이 채택되어 사회적으로 금연열기가 활발해지고있는 속에 흡연자수가 이전에 비하여 훨씬 줄어들었으며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애연가들이 담배의 해독성에 대해 리해만 하고있을뿐 입에서 담배를 뱉는기를 무척 힘들어하고있다.

용이한 마음다짐으로 담배를 끊었다가도 참지 못해 한가치, 두가치로 나쁜 습관에 다시금 용해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사는 리권(57살)과 평양시 서성구역에서 사는 윤경철(37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찾을수 있다.

리권: 나는 근 35년간이나 줄곧 담배를 피워왔다. 금연법에 접하고나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담배를 왜 계속 피워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단호한 결심을 내리었다.

담배를 한순간에 끊자니 몹시 힘들었다. 금연보조약들을 쓰긴 했지만 여전히 습관적인 담배생각은 없어지지 않았다. 처음 3일, 1주일간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달이 지나서 확실히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기온이 떨어지면 발병하곤 하던 기관지염을 비롯한 이상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입안이 깨끗해졌으며 위도 좋아졌다. 건강한 몸상태가 나오 하여금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금연을 계속 지향하게 하고있다.

윤경철: 담배를 끊는데서 가장 기본적인 인자는 무엇보다도 금연을 강렬히 지향하고 실천해나가는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처음 아버지의 담배팩에서

몰래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작할 땐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인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가정의 세대주가 된 오늘 흡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가정의 훌륭한 남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였다. 까닭이 명백해지니 생각을 곱씹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금연보조약들의 도움없이도 담배를 쉽게 끊을수 있었다.

리권: 금연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탱해나가는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담배를 끊었다고 하여, 또 오랜 시일이 지났다고 하여 남자들이 그 맛을 완전히 잊을수는 없다. 내 경우가 그렇다. 술좌석이라든가 오랜만에 만난 옛친구가 담배를 권할 때, 사업에서 힘이 들고 성과가 없을 때 등 많은 요인들은 여전히 금연



자들을 흡연으로 유혹하곤 한다. 유감이지만 그 한대에 못이겨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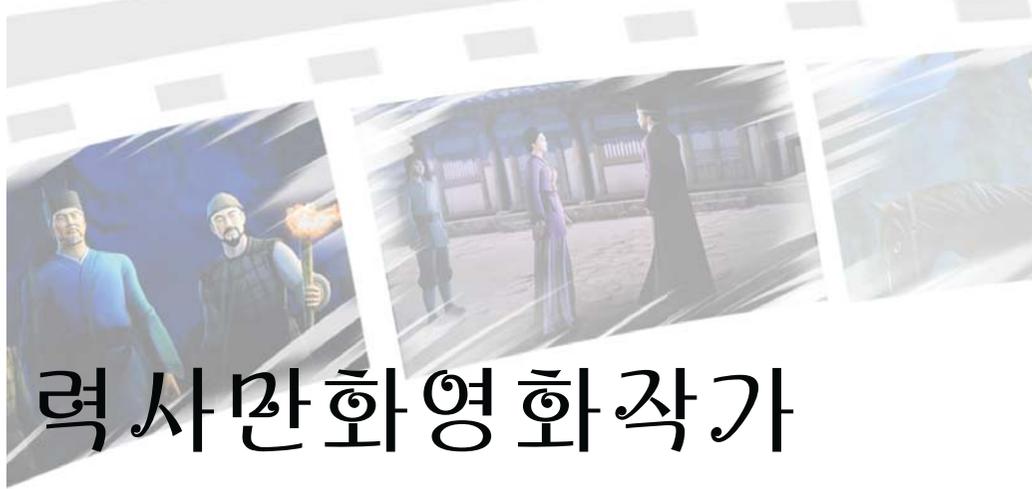
윤경철: 그렇다. 명백한것은 누구나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남자다운 강의한 인내성을 지닌다면 그 아슬아슬한 《위험고비》들을 어렵지 않게 넘길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권: 옳은 말이다. 이 기회에 나는 흡연자들에게 사람은 좋은 습관을 붙일수 있는 능력이 있을뿐아니라 또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습관을 버릴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것을 권유하고싶다.

... 아마도 이들의 이야기는 흡연자들과 금연희망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보다 새로운 느낌을 줄것이다.

날로 고조되는 금연열기로 머지않아 고질적인 많은 흡연자들이 이 두 남자처럼 자기 나름의 성공한 금연경험을 가지게 되리라하는것은 확실하다.

본사기자 김성경



력사만화영화작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다부작력사만화영화 《고주몽》을 34부까지 창조하였다.

작가 김춘원이 창작한 이력사만화영화는 우리 나라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B.C. 277년-A.D. 668년)를 세운 시조왕 고주몽에 대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촬영소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영화를 위주로 만들었다. 촬영소에서는 의인화와 동화적수법으로 창작되는 아동영화와 함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만화영화를 창작할 목표를 세웠다. 처음 선택된것이 바로

《고주몽》이다.

김춘원은 처녀작인 조중합작 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으로 하여 영화계에 알려졌다.

그는 《만화영화창작에서 당대 인물들의 성격을 살려내는것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말하였다.

처음 그는 며칠동안 《고주몽전설》을 수십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도서들도 탐독하고 해당 학자들과 수십차례나 마주앉으며 역사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를 가지었다.

그의 사색은 창작실에서뿐만아니라 출퇴근길에서도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 그는 역사에 실제



김춘원

한 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만화영화인것만큼 상대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정하는것이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큰 작용을 하게 된다는것을 찾게 되었다. 난문제는 부여의 금와왕을 어떤 성격의 인물로 그리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춘원은 고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를 죽인 원수이며 어머니인 류화에게 눈독을 들이고있는 금와왕을 걸으로는 선량하고 인정많은 인물로 그리면서도 권력확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음흉한 야심가, 음모군으로 형상함으로써 주몽과 금와왕의 갈등에 의해 사건들이 벌어지게 줄거리를 끌고나갔다.

그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고주몽과 여러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설정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화면에 그려내면서 단합과 통일이라는 종자를 꽃피워나갔다.

력사만화영화 《고주몽》(1부-10부)에 대한 첫 시사회가 있는 날 창작가들모두가 《성공!》이라며 기뻐할 때 오직 그만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나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그것은 판중이 등장인물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림으로 볼것 같아서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만화영화 《고주몽》의 새련속부가 상영되는 날이면 그는 관중들이 어떤 감흥을 가지고있는가를 알기 위해 평양역앞 대형전광판앞으로 가곤 하였다.

련속부를 창작하며 그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세부 등 모든 형상요소를 흥미분위가 아

나라 역사적사실에 충실히 복무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뿐만아니라 극적인 사건들을 떠나갈수 있는 전제를 주고 방대한 련속편의 이야기를 흥미있으면서도 줄기차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주인공과 상대인물들의 형상의 폭을 넓혀나갔다.

춘원은 만화영화창작의 나날 등장인물들에게 정이 들어 그들이 자기결에 살아있는듯 한 느낌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력사만화영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는것과 함께 촬영소의 많은 동업자들과 시청자들이 작가 김춘원을 《고주몽작가》라는 별칭으로 부르고있다.

김춘원작가의 창작적사색은 련속부를 기다리는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나날이 심화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조선속담 (편견)

-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한번 곱게 본 사람은 자꾸 곱게만 보여서 결함이 보이지 않고 한번 밋게 본 사람은 자꾸 밋게만 보여서 좋은 점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상대방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쉽다는것을 경계하

여 이르는 말이다.
- 색시가 고우면 처가집 밋뚱보고도 절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되는것이면 무엇이나 다 곱게만 보인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주려 와도 미운 놈 있고 받으려 와도 고운 사람 있다

① 사람에게 대한 정은 리해관계에 의해서만 생기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② 자기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여 다 고맙게 여겨지는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가져간다고 하여 다 미운것은 아님을 이르는 말이다.
* * *

오가산자연보호구

오가산자연보호구는 량강도 김형직군과 자강도 화평군사이의 경계지대에 있다.

오가산이라는 이름은 오가산 봉우리를 비롯한 해발 1 000m 이상 되는 5개의 산봉우리들이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보호구는 랑림산줄기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의 한 끝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해발 높이가 720m로부터 약 1 230m 사이에 자리잡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1 300여종의 식물이 있다.

보호구에서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바늘잎나무들과 신갈나무, 황경피나무, 피나무 등 넓

은잎나무들이 자란다.

산골짜기들에서는 땡강말밭도리, 메역순나무, 딱총나무 등 떨기나무들과 머루, 다래, 오미자 등 덩굴식물과 여러종의 버섯이 자란다.

보호구에는 1 100여년 묵은 주목을 비롯하여 700여년 자란 신갈나무, 500년이상 자란 잣나무와 피나무 등 수백년 자란 나무들이 많다. 이외에도 만삼, 삼지구엽초, 산함박꽃, 시

호, 백미 등 약초들과 얼레지, 두릅, 고사리, 병풍, 참나물 등 산나물들이 많이 자라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동물생 활환경이 매우 유리한것으로 하여 산짐승류와 새류, 랑서과





오가산주목

총류, 물고기류 등 수백종의 동물이 있다.

보호구에는 오가산주목, 오가산잣나무, 오가산참터피나무, 오가산피나무, 오가산원시림 등 여러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되는 천연기념물들과 동식물자원이 과학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주체65(1976)년 10월 자연보호구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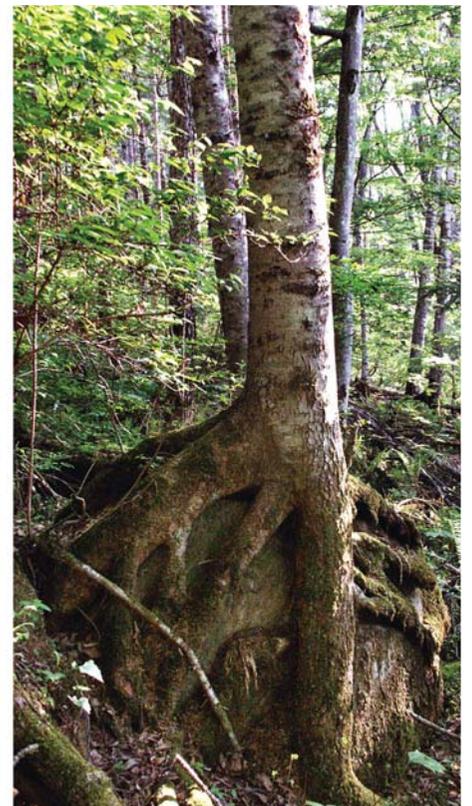
본사기자



오가산의 산짐승들



오가산의 산나물들



바위를 휘감고 자라는 나무들

민족의 기상과 용맹을 닮은 새

동포여러분, 이번 《민족의 향기》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속에 자리잡고있는 참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매는 독수리목 독수리과 새매속에 속하는 전형적인 산림성 맹금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흔히 매를 보라매, 송골매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렀으며 그가운데서 우수한 매를 《참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보라매는 가슴부위의 털색같이 보라색을 띠고있어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변나라들에서는 조선의 푸른 매라는 뜻에서 해동청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참매는 눈우에 뚜렷한 흰 선이 있고 대가리 윗부분은 검은 모자모양을 나타내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은 매우 날카롭게 구부러져있으며 날개는 길고 넓으며 긴 꼬리는 끝이 둥그스름합니다.

참매는 수명이 대략 20년정도

로서 조국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있는 사철새입니다.

러세가 강한 참매는 한쌍을 유지하며 정착생활을 하는데 한쌍이 1년이상 리용하는 령역을 참매서식지라고 합니다.

최근년간 조국의 강원도와 황해북도의 동물보호구들에서는 100여개의 참매서식지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까투리 한마리 푸르릉 하니 매방울이 떨어 우여 우여 우여 까투리사냥을 나간다》라는 조국의 민요 《까투리타령》에도 있듯이 선조들은 매를 길들여 사냥에 리용하였습니다.

참매는 대상물을 발견하면 날쌔게 돌입하여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순간에 덮치고 물어메치기때문에 잘 길들이면 짐승들을 사냥하는데 그저그만이였습니다.

고구려시기 무덤벽화들인 장천1호무덤, 안악1호무덤, 세간무덤 등에는 매를 길들이는 사람의 모습과 참매를 리용한 사

냥장면들이 그려져있으며 백제와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적지 않은 력사기록들에도 매기르기와 사냥이 널리 진행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여러 력사자료들을 고찰해보면 선조들이 참매를 길들여 사냥에 리용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참매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묘하고 다양하였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선 매를 잡으면 그중에서 제일 건장한것을 골라서 낮에는 사람이 교대하면서 매의 가슴을 쓸어주고 밤에는 등잔을 계속 켜 놓아 매가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매가 20여일을 잠들지 못하게 되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사냥에 리용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매를 15일정도 덕대에 앉혀 놓고 물에 씻은 닭고기를 먹입니다. 만일 잘 먹지 않을 때에는

굶겼다가 부리를 벌리고 먹이를 넣어주며 고기를 받아먹으면 가슴을 쓸어줍니다. 고기는 잘게 썰어 물과 함께 먹이는데 이렇게 한달정도 하느라면 매가 사람과 친숙해집니다.

매가 사람과 친숙해졌는가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봅시다.

매를 산속의 나무가지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매주인은 나무아래에서 한손에 닭고기를 쥐고 《구구》하면서 매를 부릅니다. 이때 매가 다가오면 사랑스럽게 가슴을 쓸어주고는 인차 준비했던 산 닭을 풀어줍니다. 재차 매를 놓아주어 달아나는 닭을 잡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2~3차 반복하여 매가 닭을 잘 물어오면 매에게 날고기를 먹입니다.

참매는 이웃나라들과의 대외 교역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참매를 길들여 사냥에 리용하는 방법까지도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매와 관련한 많은 성구와 속담, 야화들이 전해지고있으며 가사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에도 매의 이름이 오르고있습니다.

역센 발톱으로 사냥물을 한번 틀어쥐면 절대로 놓치지 않

는 용맹하고 슬기로운 기질을 가진 참매!

슬기롭고 강인하며 용맹한 조선민족의 기질을 닮고있을뿐 아니라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활속에 자리잡은 참매는 오늘날 국조로 선정되어 적극 보호

증식되고있습니다.

참매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국가상징물의 하나로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를 끝없이 날고날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세간무덤벽화(왼쪽)와 장천제1호무덤벽화(오른쪽)에 그려져있는 매길들이기와 사냥을 하는 고구려사람들

유모아

리득을 보러다가

어느날 두사람이 제각기 대추와 호두를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대추장사군은 높은 목소리로 《큰 대추는 씨가 작고 작은 대추는 씨가 없소! 대추사시오!》라고 웨쳤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모여와 대추를 샀다.

그 광경을 본 호두장사군은 《호두사시오! 큰 호두는 씨가 작고 작은 호두는 씨가 없소!》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가는 사람들은 웃기만 할뿐 사려 하지 않았다.

* * *

5월의 절기와 민속

5월의 절기에는 립하와 소만 이 있다.

립하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에 해당되며 소만은 양력으로 5월 20일 또는 21일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선조들은 주로 논

씨레치기, 이른 모내기, 목화밭 김매기, 누에치기 등의 일을 진행하였다.

특히 누에치기는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성행하였다. 누에치기는 누에알깨우기, 먹이주기, 자리갈이 및 자리옮

겨주기, 누에올리기, 고치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누에치기와 관련하여 뽕따는 처녀와 김매는 총각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민요 《뽕타령》이 있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바다와 강에서 청어, 전어, 이면수, 해삼, 도미, 붕어, 쏘가리 등을 잡아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그중에서도 소금이나 양념장을 발라 굽는 해주의 청어구이, 《전어굽는 냄새에 나가던 며느리도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 날 정도로 그 맛이 좋은 조선서해 바다가마을의 전어구이, 손님대접의 으뜸음식으로 불리우던 평양의 송어국 등이 유명했다.



누에치기

본사기자

상 식

각종 질병예방에 좋은 생강



생강의 매운맛성분은 몸의 찬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따스함을 유지한다.

따라서 생강을 먹으면 기침, 감기, 몸살 등이 완화되며 메스꺼움을 예방한다.

뿐만아니라 생강은 피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소관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을 막으며 뇌경색과 심근경색,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킨다.

얇게 썬 생강 1~2개를 그릇에 담아 머리맡에 두고자면 생강의 정유성분과 방향성분, 매운맛성분이 후각을 자극하여 뇌신경을 진정시키므로 잠을 잘 잘수 있다.

특히 생강은 여성들에게 좋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생강은 몸에 뱀기가 있어 소화가 잘 안되고 몸이 붓

는 여성, 비위가 약한 임산부의 입맛돋구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강은 몸이 찬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여성질환의 치료에 많이 리용된다.

그러나 생강을 많이 먹으면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위점막이 손상될수 있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서 먹는것이 좋다. 이외에도 생강은 피줄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

초먼적외선건강활성카드

몸에 항상 휴대하면 건강할수 있다, 이것은 초먼적외선건강활성카드가 안고있는 신비한 효능이다.

초먼적외선(THz)을 내보내는 재료는 높은 농도(1 000~1 500개/cm²이상)의 공기음이온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인체의 피흐름을 개선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특히 병조부위(심장병질환과 각종 동통, 부종, 신경염증, 동상 등)에 부착시키면 아픔을 해소시키는데 특효가 있다.

제품은 이미 립상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어 사

람들의 인정을 받고있다.

《심근경색으로 하여 늘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팠는데 건강활성카드를 심장부위에 며칠 착용하였더니 심장아픔은 물론 부정맥도 없어졌다.》...

신기할 정도로 인체의 생명력을 높여주고 건강상태를 향상시켜주는 초먼적외선건강활성카드.

대동강증진무역회사 대동강의료기구제작소에서 개발한 제품은 주체108(2019)년 1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받았다.

* * *



